

CCTV로 손자에게 안부 전하는 할머니



▲ CCTV로 손자에게 안부를 전하는 할머니와 할머니 영상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손자. 사진=중국군사텔레비전

군 복무 중인 손자가 걱정됐던 할머니가 매일 집 근처 CCTV에 대고 안부를 전하고 있다.

지난 28일 중국군사텔레비전은 중국 소수민족인 야오족 할머니의 사연을 전했다. 일흔두 살인 이 할머니는 지난해 9월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준군사조직인 무장경찰로 군 복무를 시작한 손자 걱정에 노심초사하던 중 손자가 부대에서 집 인근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 후로 할머니는 매일같이 CCTV 앞에서 손자의 안부를 물었다. 가족을 그리워할 손자를 위해 친척들까지 데려와 인사를 시키는 등 시도 때도 없이 CCTV 밑을 서성이며 카메라에 대고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는 “나는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 몸 조심하라.”며 “훌륭한 군인으로 성장하라.”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런 할머니를 본 손자 판하이안은 “걱정해주는 할머니를 보니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면서 “비록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만 할머니를 볼 때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할머니가 항상 내 걱정만 하시는 걸 안다.”면서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시는 군인이 되기 위해 앞으로 열심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했다.

중국인만 18세 이상의 남성은 군 복무 의무가 있는 징병제 국가다. 하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 징병제로는 병사 2,000만 명을 감당해야 하는 탓에, 자원 입대 형식의 모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판하이안은 중국 인민해방군 산하 준군사조직인 무장경찰 허난총대 자오쥬시대 소속으로 징집됐다. 무장경찰은 폭동과 시위 진압 등을 담당한다.

동생 구하려 불 속으로 뛰어든 소년

화마에 휩싸인 집에 남겨진 어린 동생을 구하려 불 속으로 뛰어든 7살 소년의 사연이 감동을 전하고 있다.

지난달 8일 테네시주 뉴 데이즈웰에 사는 데이비슨 부부 가족은 평소와 다름없는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얼마 후 이들 부부는 무언가 타는 냄새에 잠에서 깬다. 침실을 나오자 집 전체에 불이 붙은 상태였고, 부부는 서둘러 아이들을 구하려 나섰다. 큰아들인 7살 일라이와 2살 된 엘리야 등은 무사히 집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생후 22개월 된 막내 에린은 침실 주변에 불이 붙은 탓에 구조하기가 어려웠다.

부부는 막내딸 방의 창문으로 진입을 시도했지만, 창문 높이가 높아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큰오빠인 일라이가 나섰고, 부모는 일라이를 어깨에 태워 높이 올린 뒤 막내딸 방으로 들여보냈다. 일라이는 무사히 어린 동생을 품에 안고 창문 밖으로 나왔고,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인 후였다.



▲ 동생을 구한 데이비슨과 화마에 전소된 소년의 집. 사진=유튜브(Viral News) 캡처

데이비슨 부부는 “어른도 하지 못할 일을 일라이가 했다. 너무나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일라이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에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매우 무서웠지만 동생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데이비슨 부부는 첫째 아들 일라이를 포함해 둘째 엘리야와 막내 에린을 모두 입양해 키우고 있다.

유기, 파양 겪고 ‘견생역전’한 경찰견



▲ '배저와 배럿 순경. 사진=트위터(Simon Jones)

유기에 파양까지 겪었지만 지금은 경찰견으로 활약하고 있는 ‘견생역전’ 한 강아지가 화제다.

지난 29일 '나우뉴스'가 이브닝스탠다드 등 현지 매체의 최근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코커스패니얼 견종의 '배저'는 6개월 간의 마약 탐지견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고 현재 현장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배저는 지난 11월 서식스주 동부 시퍼드에 있는 벨그레이크 거리의 한 교회 안에 숨겨져 있던 마약과 현금 등 마약 범죄 증거물을 찾아내 용의자 체포에 일조했다.

생후 20개월 정도 된 배저는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배저는 2019년 7월 서리주 레드힐의 한 공원에서 누군가 놓고 간 파란색 플라스틱 물통 안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었다. 당시 생후 6주 정도밖에 안 됐던 배저는 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물보호단체 '왕립 동물학대방지협회' (RSPCA)의 구조대원에 의해 극심한 영양실조와 피부병으로 얼굴의 털이 빠진 상태로 구조됐다. 이후 배저는 한 가족에 입양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파양돼 다시 RSPCA의 동물 보호소로 돌려보내졌다.

이후 RSPCA 측은 배저가 숨겨놓은 테니스공을 찾는 놀이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고 곧바로 서리주 경찰에 연락해 배저를 경찰견으로 채용할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이렇게 해서 배저는 서리주와 서식스주의 합동 경찰견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해 6개월 만에 마약 탐지견 자격을 얻었다.

현재 배저와 함께 한 팀으로 일하고 있는 핸들러 스티브 배럿 순경은 “배저는 많은 사랑을 받고 훈련을 거친 끝에 사람에 대한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이제 경찰견으로 훌륭하게 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7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료해 드립니다. 침, 부항,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이지 초이스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진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시간: 월~금 9am~6pm
화 1pm~6pm/토 9am~12pm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론
한의원,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